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고찰

강 경 미 교수
(Ph.D., 그리스도대학교)

국문초록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주민이 매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탈북과 제 3국의 체류가 비교적 용이한 여성이주민의 수가 남성보다 2-3배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주민여성들은 탈북 및 체류과정에서 성폭력, 인신매매, 매춘 및 사생아 출산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훨씬 더 심한 정신적 외상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정신적 외상과 함께 남한사회 적응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 정체감 혼란을 남성들보다 더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자 입국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경우 심리적 외로움과 경제적 자립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남한남성과의 결혼을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과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미처 해결하기도 전에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부 및 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적응문제와 함께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 측면에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기초연구로 결혼의 성경적 원리, 부부간의 성경적 교제방법 및 기독교상담의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중심단어 : 북한이주민여성, 남한사회적응문제, 결혼생활문제, 지원방안, 기독교상담

I. 여는 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과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의 수는 2008년 2월 기준 13,000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탈북 입국자 이외에도 북한을 탈출 한 후에 중국과 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의 수도 5만~10만이며, 앞으로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주민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지난해 입국자 수는 2019명으로 한해 2000명을 넘기도 했다. 또한 탈북 입국자 중 76.4%인 1,543명이 여성으로 2004년부터 여성이주민 수가 남성의 2배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는 3배에 이르고 있다.¹⁾

북한이주민여성의 입국 증가의 이유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신분으로 상업 활동 및 외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탈북이나 제 3국 체류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제 3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성폭력과 인신매매, 매춘강요, 현지 남성과의 사실혼관계로 인한 사생아 출산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외상을 안고 있는 탈북여성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사회적응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 정체감 혼란을 남성들보다 더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자 입국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경우 외로움과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남한남성과의 결혼을 서둘러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과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미처 해결하기도 전에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혼자체의 스트레스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남한남성과 결혼 및 동거하는 북한이주민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부와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적응문

제와 함께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이 체험하고 있는 생활문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독교상담 측면에서 조명하여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원만한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결혼의 성경적 원리, 부부간의 성경적 교제방법 및 기독교상담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북한이주민 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

최근 들어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주민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민의 상당수가 남한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 정신적 건강문제

북한이주민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정신적 외상과 함께 남한에 입국 이후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이주민여성들이 안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건강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과정에서의 영양실조 문제로 신체건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오랜 기간의 도피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북한이주민여성 대부분이 탈북 후 제 3국에서 공포와 위협, 이별, 성폭력, 인신매매, 극심한 배고픔 등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을 경

힘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남한사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적응의 결과는 북한 이주민여성들로 하여금 피해의식과 함께 불안과 우울, 분노, 의존,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혼자 또는 가족의 일부만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은 북한이나 중국, 태국 등 제 3국에 남겨 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 불안 및 죄의식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경제적 자립문제

정부는 북한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정착 지원제도가 잘못하면 북한 이주민들에게 의존심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05년부터 정착금을 대폭 조정했다. 2004년 이전에는 초기정착금 560만원과 주거지원금 760만원을 지급하고 분기분할금을 5년 동안 120만원씩, 생계지원금으로 월 54만원으로 총 정착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초기 정착금을 3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에 주거지원비를 1,000만원 증액했다. 또한 분기분할금을 2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으로 매월 3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총 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이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에게 주는 총 정착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생계지원금이 월 34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혼자 입국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경우 주거지원비도 부족하고 또한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외에도 가족 단위로 입국한 북한이주민의 경우에는 영구입대나 국민입대 아파트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혼자 입국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주택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³⁾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남한사회 정착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주민여성들 대부분이 일을 하

지 않고 있어 무직자가 많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순 노동자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함께 이들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해주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주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에 이를 때까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특례를 적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로 처우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⁴⁾

3) 남한사람들과의 인간관계형성 문제

북한이주민여성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이전에 겪었던 극한 생활경험과 함께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와 가치관 및 언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남한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한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운 요인으로는 남북한의 가치관의 차이(41.7%), 북한사람들에 대한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33.3%), 남한사람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행동(25%)의 순으로 나타났다.⁵⁾ 또한 북한이주민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 편견, 차별도 서로의 관계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북한이주민 본인들의 심리적 위축과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및 남한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인간관계 형성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주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이주민들과 함께 물려있기를 선호하며, 서로 응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4) 남한사회 적응실패문제

북한사회에서의 빈곤과 억압, 이탈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위협, 남한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의 문제 등, 국내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주민들이 생활기반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남한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⁷⁾ 북한이주민들

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아정체성의 혼란과 의식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언어문제, 집단주의적·의존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한사회 정착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개인의 능력부족(40%), 건강(26.7%), 취업의 어려움(20%), 차별(17%) 등이며, 개인의 능력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⁸⁾ 이와 같이 북한이주민들은 자신들의 남한사회 부적응의 원인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의 문제와 남한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은 남한사람들에 대해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고 보며 심지어 적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삶의 질도 낮은 편으로 남한생활에 꿈과 희망을 기대하기 보다는 거둬들인 실패로 인해 무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주민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5)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의식변화의 문제

북한이주민여성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험한 탈북과정과 제 3국가의 체류에서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남한에 도착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 때문이다. 북한이주민이 남한사회 입국할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신변불안해소(36.7%), 경제적 이유(33.3%),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2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 빛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적 보호' 라는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던 북한이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전입되면서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감정과 생각, 행동들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직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외에도 제한된 정착금과 최저 생계 지원비로 경제적 자립을 못하면 생활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생존의 위협과 함께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주민들은 남한

이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생활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이주민들이 내재화된 과거의 의식과 관계를 정리하거나 통합하고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북한이주민 여성들의 남한 남성과의 결혼실태와 문제

최근 북한이주민여성들이 급증하면서 외모와 언어가 비슷하고 또한 남한 사회에서 북한여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순종적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면서 남한남성들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주민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는 북한이주민여성들의 결혼문제가 부각되면서 결혼을 앞둔 북한이주민여성들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 정신건강 및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결혼동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주민 여성이 남한의 남성과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와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남한남성과의 결혼실태

남한의 농촌 및 도시의 미혼남성들은 북한이주민여성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외모와 언어가 비슷하고 또한 다른 국제이주여성들과 다르게 국적취득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결혼대상자로서 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이주민 여성들 역시 문화적 이질감과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남한사회 적응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혼을 서둘러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북한 간의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 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출 및 별거, 이혼, 가정폭력 등 심각한 부부문제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문제

비록 남과 북이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오랜 분단으로 인해 북한이주민들을 타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남한남성과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하면⁹⁾ 결혼과 관련된 정보부족,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결혼동기, 시집살이, 가사노동, 의사소통의 어려움, 남편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음주, 폭언, 폭력, 도박 등),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문화적, 생활습관의 차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경제적 소득과 학력차이, 불공평한 대우, 소외와 무시 등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북한 이주민 여성과 연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에 대한 정보 및 동기부족

북한이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단독으로 입국한 여성의 정신건강이 가장 취약해서 연구대상 중 53.8%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다.¹⁰⁾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면서 빠른 정착을 위해 남한의 생활과 남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남한에 입국과 동시에 결혼을 선택한 북한이주민여성은 탈북과정에서 그리고 제 3국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편을 통해서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적 제도 및 습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정보부족은 결혼 후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심과 폭력, 가출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결혼생활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지기도 한다.¹¹⁾

(2) 북한이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차별과 무시

사회적으로 남한사회가 북한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북한이주민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을 남한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편견과 낙인은

결혼 후에도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폭언과 폭행도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순종만 요구하거나 가정부 역할만을 강조하고 완전히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주민 결혼여성들도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결혼에 대해 심하게 갈등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3)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

현재 남한에서 북한이주민여성들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도시와 농촌의 노총각들이다. 따라서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소규모 농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이주민 결혼여성들이 대체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 또한 결혼 후 가정의 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거나 또는 남한생활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¹³⁾

(4) 이주로 인한 상실감

북한이주민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하면서부터 자신이 성장했던 북한의 문화와 가치, 정체성, 가족 및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심리적으로 혼란과 정체성 위협, 과거 관계에 대한 강한 의존성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정체성 상실문제는 이주자

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이다.¹⁴⁾ 특히 기아나 신변의 위협 등의 이유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한 경우에는 본국을 탈출해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에 정착하기까지 불법의 신분으로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예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체제가 재편되면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동독이주민의 경우 서독의 개별화되고 경쟁적인 문화에 재적응을 요구받으면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정신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인들이 경험한 상실의 체험은 같은 공산주의국가였던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이주민들의 상실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북한이주민여성들은 남한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로 인한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가족에게는 자신을 숨기고 남한의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북한이주민들과 연계하고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가족들과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에 갈등이나 문제가 초래되기도 한다.¹⁶⁾

(5) 가정에서의 고립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민 여성들 중 대다수가 집안의 대소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남편과 시댁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도 자신의 말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이 없다고 생각에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주민여성들 역시 결혼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과 또 남한에 완전 정착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쉽게 시작했던 결혼이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때로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립감은 북한이주민 여성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가출이나 우울증,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남한남성과의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문제와 기독교상담

북한이주민여성들은 북한을 탈출, 남한에 입국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준비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 도착한 후 생각했던 것과는 현실이 다르고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남한사회 적응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남한남성과의 결혼을 사전의 준비 없이 선택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게서 출현하고 있는 부부 및 가족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주민여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또한 남한남성들과 결혼하는 숫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부부 및 가족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여러 사회단체들이 다문화가정 결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듯이 기독교상담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독교상담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개념 및 결혼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원리와 교제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결혼의 성경적 개념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원리로 '성숙한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또는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나 고안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세상에 구현되고 창조의 법칙이 지배하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을 매개로 조직된 가정을 창조세계를 운행함에 있어서 인간사회의 기본단위로 삼으셨다.¹⁷⁾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결혼은 동반자의 관계로 하나의 친밀한 연합 또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인 것이다.¹⁸⁾

2)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개개인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역시 각각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모습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 가치와 위치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결혼관계는 성립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를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엡1: 1-14 ; 사43: 1-7 ; 벰전2: 9-10). 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2:3)”라는 성경의 말씀은 즉 올바른 결혼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인격의 존중이 우선이다.

최근에는 결혼을 사랑보다는 물질이 우선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결혼에서 물질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인격의 존중이 먼저이다.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또한 아내들에게는 “아내 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흑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엡15:25-2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으로 정해주시면서 물질에 따른 비윤리적 행위로 서로에게 손상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2) 결혼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부부사랑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만일 부부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역기능적인 결혼생활은 부부가 서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낮은 자존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3)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성경은 결혼과 관련하여 서로를 돕는 자의 내면적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서로를 돕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 없이 자기를 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돕는 것은 참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내면적 자세에 대해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선행을 바탕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3)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성경적 교제방법

인간은 홀로 완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성경에도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6:2)” 여기서 짐이란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는 것(벧전 3:8)을 의미한다.²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레19:17,18) 서로 진실하고 화목하며(막9:30), 서로 마음을 함께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롬12:15),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롬

12:17)이다. 이와 같은 원리에 기초해서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교제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¹⁾

(1) 서로 사랑해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한 베드로도 “무엇보다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고 말하면서 서로를 열심히 진정으로 사랑할 것을 권했다.

(2) 서로 봉사해야 한다.

베드로는 “서로 대접 받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9,10)”고 말했다. 또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서로 대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벧전 5:6)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두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베드로 자신도 사도들 앞에서 결코 군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손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겸손할 필요가 있다.

(4) 서로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서로 기도할 것을 역설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믿음 있는 중보의 기도는 병든 자와 고난을 받는 자를 구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취됨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비판하기 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급하다고 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선을 이룸과 동시에 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연합하여(시133:1)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비판하고 다투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야 할 것이다.

(6)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회년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를 서로 속이지 말라”(fp25:14)고 하셨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부부는 그 모습과 행실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7)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약5:9).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의 미덕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을 보여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8)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6:12)라는 말씀같이 결혼관계는 용서를 전제로 다툼을 멀리하고(잠16:7), 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벧전3:9)이다. 더 나아가 판단보다는 이해의 관계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라(골2:2)고 권고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참고, 용서 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사랑을 더 하라고 했다.

3)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 여성들과 기독교상담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사역(Spiritual therapy)이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이’ 라고 고백하는 상담이며, 구원의 통로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상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는 상담이다.²²⁾ 또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을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²³⁾ 따라서 기독교상담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 거듭남으로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정파괴와 이혼, 자살 등 인간성 위주의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이때에 기독교상담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절실히 요구되고 사역이다.²⁴⁾ 또한 결혼관계에서의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교제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으로 기독교를 모르는 북한이주민여성들을 위한 결혼상담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결혼과 관련된 기독교상담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복음의 체험으로서의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의 근본목적은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변화를 통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북한이주민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일상생활의 지혜를 전함으로써 복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2) 거듭남의 체험으로서의 기독교상담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신앙이고 거듭남의 신앙이다. 기독교상담을 통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영성이 변화하면서 마음이 건강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과 남한입국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 강박한 마음의 북한이주민여성들에게 기독교상담을 통해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 사고로 마음을 변화시켜 남한사회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부부와 가족문제에 대한 치유로서의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역기능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주민 결혼여성들 가정에 기독교상담을 통해 부부와 가족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4) 가정의 성숙을 위한 기독교상담

기독교상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배움과 훈련의 과정으로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말씀 안에서 서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만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을 통해 북한이주

민 결혼여성의 가정으로 하여금 생활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신앙훈련을 통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가정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Ⅲ. 닫는 글

2007년 지난해 남한 입국자 수는 2019명으로 2000명 선을 넘으면서 북한이주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탈북 입국자 중 76.4%인 1,543명이 여성이주민으로 남성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는 혼자 입국한 여성들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탈북과 체류가 용이해서 남한입국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받은 심리적 외상이나 체험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 혼자 입국한 여성이주민의 경우에는 심한 외로움과 함께 남한사회 적응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남성과의 결혼을 비교적 쉽게 선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안게 된다. 북한이주민 결혼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회기관과 단체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앞으로 기독교상담도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남한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먼저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학적 측면에서 북한이주민여성들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모색으로 결혼의 성경적 원리, 부부간의 성경적 교제방법 및 기독교상담의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실

제적인 연구들이 많이 실행되어서 효과적인 기독교상담기법들을 개발, 남북 통합시대를 대비해서 북한이주민들의 가정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20호 (2007): 319-60.
- 김오남.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개입”. 『사회복지』175호(2007): 22-55.
-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 문성호.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복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권 1호 (2005): 5-17.
- 박은혜. “기독교상담이 가정생활의 회복과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선교대학원. 2002.
- 백태중. “교회의 치유사역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통한 복음전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 1998.
- 서강훈. “현대교회와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신학대학원. 2003.
- 안용완. “남북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 허브구축의 필요성”. 그리스도대학교 민·관·학 파트너십을 위한 기초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초청 토론회 자료집. 2008.
- 이민영, 김현경.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사회복지연구』 35호 (2007): 525-54.
- 이응교.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 권 1호 (2005): 51-67.
-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적응에 따른 허브구축의 방안”. 그리스도대학교 남북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 허브구축을 위한 전문가 심층 토론회 자료집. 2008.
- 주계영.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베드로서원, 1998.
- 채정민, 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적응과

- 사회적 정체 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권1호(2004): 41-63.
- 한인영, 이소래. “북한이탈주민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한국 가족복지학』 10호(2002): 122-41.
- 황규명. “가정과 이혼, 재혼,” 『복음주의 가정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43-63.
- Dennis, Ultner. *Family Ministry of Christian*. 박상철 역. 『그리스도인의 가정목회』. 서울: 쿤란출판사, 1993.
- David, K. Killian. “Dominant and marginalized discourses in interracial couples narrativ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Family Process* 41(4). 2002, 601-11.
- Jay E. Adams. *The Theory of Christian Counseling*. 류근상 · 원준자 역. 『기독교 상담 신학』. 서울 : 크리스천 출판사, 2002.
- James, Merrill & James Owens. “Self-poisoning among four immigrant group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77. 1988, 77-87.

[후주]

- 1) 안용완, “남북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 허브구축의 필요성”, 그리스도대학교 민·관·학 파트너십을 위한 기초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초청 토론회 자료집(2008): 23.
- 2) 이민영, 김현경,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사회복지연구』 35호 (2007): 525-26.
- 3) 이용교, “새터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권1호 (2005): 54.
- 4) 문성호,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청소년 복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권 1호 (2005): 8-11.
- 5)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적응에 따른 허브구축의 방안”, 그리스도대학교 남북통합 및 북한 이탈주민 관련 사회복지 허브구축을 위한 전문가 심층토론회 자료집(200): 3.
- 6) 채정민, 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적응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권 1호(2004): 42-43.
- 7) 김연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4): 11.
- 8)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적응에 따른 허브구축의 방안”, 1.
- 9)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호 (2007): 330-335.

- 10) 한인영, 이소래, “북한이탈주민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호(2002): 136.
- 11) 이민영, 김현경,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529-530.
- 12) 구치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331.
- 13) 김오남,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개입”, 『사회복지』 175호(2007): 26.
- 14) David, K. Killian, Dominant and marginalized discourses in interracial couples narrative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Family Process, Vol.41, No.4*(2002): 603.
- 15) James, Merrill & James Owens, “Self-poisoning among four immigrant group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Vol.77*(1988): 79.
- 16) 이민영, 김현경,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544.
- 17) 서강훈, “현대교회와 가정사역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3), 17.
- 18) 황규명, “가정과 이혼, 재혼”, 『복음주의 가정상담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44-45.
- 19) 백태중, “교회의 치유사역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통한 복음전파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 1998), 106-107.
- 20) Dennis, Ultner, *Family Ministry of Christian*, 박상철역, 『그리스도인의 가정목회』(서울: 쿰란출판사, 1993), 29-33.
- 21) Dennis, Ultner, *Family Ministry of Christian*, 박상철역, 『그리스도인의 가정목회』, 164-175.
- 22) 주계영,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서울: 베드로서원, 1998), 27.
- 23) Jay E. Adams, *The Theory of Christian Counseling*, 류근상 · 원준자, 역 『기독교 상담신학』(서울 : 크리스찬 출판사, 2002), 1-3.
- 24) 박은혜, “기독교상담이 가정생활의 회복과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선교대학원, 2002), 22-3.

【 Abstract 】

Christian Counselling for North Korean Migrant
Women who marry South Korean Men

Kang, Kyung-Mi
(Ph. D., Korea Christian University)

A significant number of North Koreans has been migrating to South Korea in recent years. Especially, North Korean migrant women outnumber North Korean migrant men by three to one. More attention has to be paid to the adjustments of the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hile North Korean migrant women were wondering around many countries, they experienced sexual harrasment, human trafficking, prostitution, and out-of-wedlock births. When they came to South Korea, they were exposed to new social circumstances without any treatment for their trauma. They are suffering from apprehension, depression, and identity crisis. In order to obtain emotional and financial security quickly, North Korean migrant women choose to marry South Korean. However, North Korean migrant women cannot lead sound family lives because of their trauma and social maladjust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maladjustment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y problems and proposes some solutions for the sound lives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biblical marriage and the biblical relationship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in the light of Christian counselling.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Women,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Marriage Counselling, Supporting Methods, Christian Counselling